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한 考察 -한의학의 精神觀-

白上龍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Study on Duties and Abilities of a Human's Mentality [five kinds of mental activities] -Oriental Medicine's Outlook on Mentality-

<Abstract>

The four treasures of life, essence[精]·spirit[神]·energy[氣]·blood, separates into four different qualities in activities of life and performs its' own duti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ll have the same origin. But the logic system of oriental medicine emphasize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rather than the separation. It also valued the importance of functions of only energy and blood[氣血]. So inevitably, the oriental medicine logic lacks research on the differentiation of mentality[神志], its' characteristic and use. This lack of research can be the cause of a mistaken diagnosis. For example, diseases like insanity, epilepsy, imbecility, and amnesia can very much likely to be caused by abnormality of Mentality. But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of Mentality, we can easily mistake the disease's cause for abnormality of Ki or blood, or we might even assume that it developed into such secondary mental diseases from diseases that primarily generated in organs. As a way of solution to this problem, I have studied and compared various masters' editorials, focusing on 「Hwangjenekyung」, and presented them in the main subject. I have analyzed each characteristics, abilities, duties and the mutual metabolism of the vitality, spirit, thought, will and other Mentality units. Based on these studies and analysis, I have contemplated on the operation of Mentality inside a human's mind, such as recognition, sense, thinking, memory, and dream.

Key word : Mentality[神志], consciousness, outlook on mentality, five kinds of mental activities[五神], memory.

1. 緒論

神은 精·氣·血 등과 함께 一氣에서 발원 하였지만, 陰陽의 轉化과정 중 陽化의 극단에

서 발생하고, 그 단계에 맞는 質과 能力을 갖추고 있다.

精·神·氣·血 등 生命의 四寶는 근원의 同質성과 상관없이 실제 生機의 과정 중에서

각기 다른 性質로 分節되어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의학의 논리체계는 어떤 면에서 이들의 分節보다는 聯關性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또 氣血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神志¹⁾의 分化와 性質 및 用度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는 狂이나 癲·痴呆·健忘症 등 神志의 이상변화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病證에 있어서도, 신지의 변고를 기혈 등 다른 分氣²⁾의 이상이나 장부의 病變으로 유발된 2차적 병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신지도 오장에 分屬되어 있고 기혈의 자양을 받아 용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이 결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신지 각 單位들 자체의 성질이나 能力·職分 및 상호작용과 기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神志病變에 대한 대처에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제가의 논설들을 비교·고찰하여, 魂·神·意·魄·志 등 신지 각 단위의 성질과 능력·직분 및 상호기전 등에 대하여 분석해봄으로써, 인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認知·意識·思考·記憶·꿈 등 신지세계의 작동기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神志와 形體는 來源과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생명활동 중 용도에 따라 特化된 한 氣의 變態이다. 그러나 생명활동이나 질병의 과정 중에 형체와 신지는 서로 별개의 사물처럼 分節되어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체와 신지가 同一한 생명의 眞氣[精氣]에서 발생하였지만, 이미 分化한 후에는 서로 合致할 수 없는 個性(條理)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1. 五藏의 分化와 神志의 分屬

五藏은 五神藏이라고도 한다. 이는 오장이 五神[神志]을 잠장하여 생명의 意志와 性格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신지는 오신 陰陽의 양단인 神과 志를 합칭하는 말로 곧 오신의 대명사이다. 신지는 생명활동의 주체로서 氣가 움직이고 전화하는 과정의 裏面に 숨어서³⁾, 이들이 생명의 목적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재한다. 그러므로 오장의 활동은 五藏이 잠장하고 있는 五神의 조화이며, 精에서 나온 힘 즉 氣[五藏之精氣]의 작용이다.

五神은 각기 그 맡은 바 역할에 상응하는 오장을 거처로 삼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니, 이들의 성질은 오신의 거처인 오장의 역할로 대변되어지고, 五行의 속성을 따른다.

“오장이 잠장하는 것은, 심은 神을 잠장하고 폐는 魄을 잠장하며, 간은 魂을 잠장하고 비는 意를 잠장하며 신은 志를 잠장하니, 이를 일러 ‘五藏所藏’이라고 한다.”⁴⁾

따라서 五藏之氣의 작용은 神志의 作爲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신

1) 일반적인 物質과 精神의 이분체계로 본다면, ‘神志’는 精神이라고 함이 옳다. 그러나 음과 양의 특성에 따른 有形과 無形의 분화를 따른다면 ‘유형의 형체와 무형의 신지’로 봄이 옳다고 본다. 『素問·解精微論』에서 “夫水之精爲志, 火之精爲神, 水火相感, 神志俱悲, … (무릇 水氣의 精華는 志이고 火氣의 精化는 神이니, 水火가 서로 감응하면 神志가 모두 슬퍼진다.)”고 하여, 음양의 대대관계에 따라 神과 志를 규합하여 神志라고 하고 있다.

2) 精·神·氣·血·脈·筋·骨 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氣의 본질과 合成을 통해 化生되었다. 여기서 ‘分氣’라고 한 것은 이런 요소들의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같은 氣의 일종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3) 白上龍, 神志의 활동과 衛氣의 역할·신지와 기혈의 호근,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3.

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6, p.92. “五藏所藏, 心藏神, 肺藏魂, 肝藏魄, 脾藏意, 腎藏志, 是謂五藏所藏.”

의 의도에 따라 오장은 精氣를 발동시켜, 전신의 氣血을 용도에 알맞게 推動함으로써 인체를 영위한다.

이는 오장의 직분과 기능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素問·靈蘭秘典論』의 기술을 통해서 보다 명료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심은 君主와 같은 기관으로 神明 즉 神의 밝음을 발휘한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주재는 神의 밝음[神明]을 매개로 이루어지니, 오신의 淸明과 混濁은 심의 神明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肝은 將軍과 같은 기관으로 謀慮 즉 豫測과 判斷을 주도한다. 神明은 간의 예측과 판단에 의존하여 선택적으로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관심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폐는 相傳와 같은 기관으로 治節 즉 활동의 過不及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며, 비는 倉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혹 諫議之官]으로 五味 등의 분별을 감지하며, 腎은 굳셈을 일으키는 기관으로 伎巧 즉 化生을 주관한다⁵⁾.

그러나 오장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神志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장의 用事는 신지와 형체를 매개하여 일치되도록 운영하지만, 각 장의 성질에 따라 신지의 용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장이 있고, 형체의 용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장이 있기 때문이다. 오장 중 陽藏에 속하는 肝과 心은 신지의 발동 및 처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脾·肺·腎 등 陰藏은 상대적으로 형체의 유지 및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陽

化의 극단에서 神이 발생하고 陰化의 결과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통하니, 『靈樞·本神』편의 오장의 허실과 병증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肝은 血을 잠장하고 血은 魂을 머물게 하니, 肝氣가 虛하면 恐情이 일고 實하면 怒情이 일다. 脾은 營을 잠장하고 營은 意를 머물게 하니, 脾氣가 虛하면 四肢를 쓰지 못하고 五藏이 불안하며, 實하면 腹脹·經澁不利 등이 나타난다. 心은 脈을 잠장하고 脈은 神을 머물게 하니, 心氣가 虛하면 悲情이 일고 實하면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肺는 氣를 잠장하고 氣는 魄을 머물게 하니, 肺氣가 虛하면 鼻塞不利·少氣하고 實하면 喘喝·胸盈仰息한다. 腎은 精을 잠장하고 精은 志를 머물게 하니 腎氣가 虛하면 厥이 생기고 實하면 脹하고 五藏이 불안하다.”⁶⁾

오장이 각기 잠장하는 魂·神·意·魄·志 등 五神은 오장을 주재하고, 五藏之氣는 오신의 주재를 받아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므로, 오장지기의 虛實은 그 藏의 특성과 밀접한 고유의 병상을 각기 발현한다. 여기서 心과 관련된 병변은 ‘悲情’의 발현과 ‘笑不休’이고 肝과 관련된 병변은 ‘怒情’과 ‘恐情’의 발현 등이다. 즉 두 장의 주 병변은 神志의 부적절한 상태인 七情 등 感情의 절제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脾·肺·腎 등의 병변은 모두 形體의 生機 상실로 인한 병증이 나타나고 있다.

오장 이외에 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으로 六府 중 膽을 들 수가 있다. 담은 비록 수곡의 전화를 담당하는 육부에 속해 있

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4.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 여기서 治節·五味·伎巧 등은 물질의 변화나 대사기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屈伸하는 神志의 변화기전이기도 하다. 예로 化生은 새로운 물질이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관이나 의식의 전환 새로운 사고 및 인지 과정의 발생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6)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9.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脾藏營, 營舍意,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藏不安, 實則腹脹經澁不利.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胸盈仰息. 腎藏精, 精舍志, 腎氣虛則厥, 實則脹, 五藏不安.”

지만, 오장 중 여타의 陰藏들보다 신지의 활동에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육부이면서 오장처럼 신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담은 특히 心의 神明이 능동적으로 외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도한다. 이에 대하여 『素問·靈蘭秘典論』·「六節藏象論」·「宣明五氣」·「奇病論」 등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膽은 中正之官으로 決斷이 나온다.”⁷⁾, “무릇 十一藏은 膽에서 결단을 취한다.”⁸⁾, “五氣가 병드는 바에, …膽은 怒情을 일으키니, 이를 五病이라고 한다.”⁹⁾, “무릇 肝은 中府의 장수로 膽에서 결단을 취하니, …이 사람이 자꾸 생각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므로 膽이 虛하고, …”¹⁰⁾

담은 오장과 육부의 중간에 위치하여 오장과 육부의 內外調和 즉 體外와 교접하는 六府¹¹⁾와 체내를 관장하는 오장이 一體的 交感을 이룰 수 있도록 매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장의 특성인 神志의 용사에 깊은 관련을 하므로 中正之官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담의 직분은 간의 內的인 謀慮가 心의 外的인 神明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부여해 주니, 『東醫寶鑑』에서 기술하고 있는 溫膽湯의 主治症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¹²⁾.

따라서 오장은 각자 자기에게 分屬되는 神志의 유도에 의해 精氣를 推動하지만, 작용에 있어서 陽性으로 편향되어 있는 心과 肝은 외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인지하는 神志의 陽化過程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脾·肺·腎 등 陰藏은 형체 안으로 귀속시키는 陰化過程을 주도함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心과 肝의 선택적 판단은 膽의 決斷작용에 의존한다.

2. 神志의 單位別 活動分野

신지 즉 오신의 근간은 생명의 본원인 精과 神이다.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오신의 本源이며, 신은 오신으로 분화하여 生命意志를 발현한다. 즉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신지가 發芽할 수 있는 토대이자 근원이며, 신은 하나의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할 때 생명활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자로서 작용한다.

신지의 분절단위인 魂·心·의·魄·지 등 오신은 각각 자기에게 걸맞는 독특한 성질 및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중 神은 神志의 으뜸으로 모든 생명의지의 발현을 담당하는 五神의 주장이다. 魂은 神을 따라 왕래함으로써 神의 보조자로서 직분을 수행한다. 魄은 精을 따라 출입하면서 精을 보조한다. 心은 神이 사물을 접할 때 신이 用事할 수 있는 기반이다. 意는 神이 사물과 접한 후 마음에 남겨진 思念이며, 志는 意로 인해 정해진 마음의 固執으로 精 안에 集積된 神의 精華이다¹³⁾.

五神은 음양오행의 分節에 따라 활동분야와 성질이 정해져 그 직분과 역할을 분담한다. 신지도 精·氣·血 등과 마찬가지로 陰·陽으로

지 못함 등을 치료한다.)”

1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故生之來謂之精, 兩精相搏謂之神.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所以任物者, 謂之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34.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7. “凡十一藏取決於膽也.”
 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92. “五氣所病, …膽爲怒, 是謂五病.”
 10)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7. “夫肝者中之將也, 取決於膽, …此人者, 數謀慮不決, 故膽虛, …”
 11) 水穀의 出納은 곧 六府가 體外와 氣를 교류함의 한 형태이다.
 12) 許俊,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6, p.116. “溫膽湯, 治心膽虛怯, 觸事易驚, 夢寐不祥, 虛煩不得睡, …驚悸怔忡, 失志不寐, …(은담탕은 심과 담의 虛衰로 인한 怯弱으로 일에 부딪힐 때마다 쉽게 놀래고 꿈이 상서롭지 못하며 허번으로 잠들 수 없고 경계·정중하며 失志로 잠들

나뉘며, 오행의 성질을 그대로 품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神은 오행 중 火氣를 품수하여 陽中之陽의 성질을 띠며, 魂은 木氣를 품수하여 陰中之陽의 성질을 띠며, 志는 水氣를 품수하여 陰中之陰의 성질을 띠며, 魄은 金氣를 품수하여 陽中之陰의 성질을 띠며, 意는 土氣를 품수하여 陰中之至陰의 성질을 띤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신지의 활동도 크게 두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外界의 변화에 대한 感知 및 收容의 부분으로 사물과 접촉단계에서 일어나며, 하나는 수용한 정보에 대한 處理 및 反應의 부분으로 주체의 내면에서 일어난다. 역으로 살펴보면 感知는 변화에 대해 자신의 감각을 각성시켜 인지하는 것이고, 收容은 인지된 것 중 수용가능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攝納하는 것이다. 處理는 수용한 정보를 기억하고 자체의 내재한 기준과 대비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反應은 판단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意는 서로 다른 신지의 활동들이 조화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준다.

사물과의 접촉은 열린세계[陽界]에서 일어나고, 내면은 자신만의 닫힌세계[陰界]이다. 陽界는 陽分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담당하고 陰界는 陰分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담당하므로, 陽界는 陽中之陽藏인 心을 근거로 하는 神에 의하여, 陰界는 陰中之陰藏인 腎을 근거로 하는 志에 의하여 주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陽中之陰藏인 肺를 근거로 하는 魄은 陽界에서 감지된 정보를 陰界로 수용하고, 陰中之陽藏인 肝을 근거로 하는 魂은 陰界에서 판단되어진 결정을 陽界로 각성시켜주니, 혼과 백은 열린세계와 닫힌세계의 교류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¹⁴⁾.

14) 여기서 문제는 신지와 형체를 매개해주는 오장이 단지 매개체 역할만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신지의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오장 안에

따라서 神志活動의 기전에 있어서, 神은 열린세계[양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神志를 外界空間으로 확장하고, 志는 닫힌세계[음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신지를 제한된 영역으로 집중하며, 魂과 魄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門戶[陰陽交際之界]를 開闢하고, 意는 이러한 神志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어준다.

3. 神志의 單位別 職分 및 役割

『黃帝內經』에서는 오신 이외에 ‘精明’이 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으니, 오신 개개와 精明을 陰陽의 대대관계에 따라 분류해 본다면, 神明과 精明, 魂과 魄, 意와 志 등으로 배합해 볼 수 있다.

1) 神明과 精明의 직분 및 역할

神明은 곧 ‘神의 밝음’이며, 精明은 ‘精의 밝음’이다. 神은 곧 心藏의 神이고 精은 腎藏의 精이니, 둘을 상합하여 논하면 ‘精神의 밝음’이다. 밝음은 혼잡이 없는 순수함을 뜻하니, 이는 곧 ‘精神의 순수한 本質’을 말한다.

신명은 君主之官인 心의 본질로 신지활동을 주도한다. 심이 생명체의 군주기관으로서 생명활동의 모든 것을 통괄할 때 그 주체는 神이고, 신이 밝을 때 생명체의 生機가 천지와 상응하여 정상적인 의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흔적을 남길 것이며, 과거의 흔적은 현재 신지활동에 반하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흔적은 신지의 오장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질 때 스스로의 의지를 일으켜 다른 형태로 자기의사표현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은 결국 형체의 동작까지 연장되어질 수도 있다. 본능 또는 무의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토로할 때는 이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생명체의 군주기관으로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神明때문이다¹⁵⁾.

이는 또한 『素問·生氣通天論』의 天氣와 神明的 관계를 논하는 부분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천지자연과 절묘한 조화[天人相應]를 통해 생명의 본원인 精神을 專一하도록 유지하는 聖인이 聖人일 수 있는 것은, 천지의 氣[天氣]를 받아들여 자기의 神明으로 會通하여 천지의 음양변화를 자신의 음양변화로 體化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지의 氣交를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神明이 私慾이나 物慾에 의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닦아 天氣를 순조롭게 받아들임으로써, 천기와 접촉하는 外候인 九竅나 肌肉 등이 본래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할 때 천수를 누리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인은 精과 神을 專一하게 하고 天氣를 복용하여 神明에 會通한다. 실조하면 안으로 九竅가 막히고 밖으로 肌肉이 壅塞되어 衛氣가 흩어져 풀어지니, 이를 일러 自傷이라고 하니 氣의 削奪이다.”¹⁶⁾

따라서 神明이 혼탁하지 않고 밝음 자체로 있다면, 그 사람은 천지가 주는 모든 혜택을 왜곡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생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신명이 혼탁해지면, 神志 또한 어지러워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狂病을 예로 들면, ‘狂’은 ‘犬’을 따르니, 광병은 곧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神明을 잃고, 개 등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古今醫統』의 狂에 대한 기술에서 이에 대한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대개 心火가 난폭하게 치성하여 언어의 선악에 親인과 生疎人을 구분하지 않으니, 이는 신명의 어지러움이고 이것이 이른 바 狂이다.”¹⁷⁾

15)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4.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1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6. “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 氣之削也.”

어떤 원인으로 神明이 어지러워지면, 분별을 잃게 되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개 등 인간의 理智가 없는 짐승처럼 동물적인 본능만 살아있고, 이를 제어하여 바른 길로 끌어주는 신명은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精은 神의 本源이며, 神이 化生할 수 있는 바탕이다. 또 陽化之極인 神과 待對하여 陰化之極으로 神의 放散을 제어하여 생명체 안으로 귀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끈[紐帶]과 같은 역할을 한다. 神의 활동으로 감지된 정보들은 일정한 여과과정을 거쳐 精으로 귀속되어 기록되어진다. 따라서 精의 밝음은 곧 神明의 감지가 이지러지거나 손실 없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 頭部는 精明의 곳집으로서, 두부 衰弱의 외형적인 징후인 두부의 기울어짐과 眼部의 陷入 등이 나타난다면, 精神이 劫奪되어지는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頭部는 精明의 府이니, 머리가 기울고 눈이 들어가면 精神이 장차 劫奪당하려 함이다.”¹⁸⁾

여기서 腎藏이 아닌 頭部가 精明의 곳집이 되는 것은, 腎이 精을 潛藏하지만 신명과 어울려 神志의 한축을 담당할 때의 精明은 두부를 매개로 한다는 것이다. 두부의 내부는 骨髓로 이루어져 있고, 이 頭腦는 골수가 모여드는 ‘海’¹⁹⁾로서 腎精의 精華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

17)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404. “蓋心火暴熾, 言語善惡, 不避親疎, 此神明之亂也, 此之所謂狂也.”

1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57.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1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74. “腦爲髓之海(腦는 骨髓의 海이다).”

20)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腎生骨髓”라고 하였으며, 「五藏生成」에서, “諸髓者, 皆屬於腦”라고 하고, 「痿論」에서, “腎主身之骨髓”라고 하였다. 또 「奇病論」에서, “內至骨髓, 髓者, 以腦爲主”라 하고, 「靈樞·經脈」에서,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髓生, 骨爲幹, …”이라고 하였다.

서 뇌수가 쇠약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바로 精明이 손상을 받아 神明의 감지를 명료하게 각인을 간직할 수 없다.

“髓海가 有餘하면 가볍고 굳세며 힘이 많아 저절로 한계를 뛰어넘는다. 髓海가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돌고 耳鳴이 일어나며 정강이가 시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답답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몸이 늘어져 편안히 눕고자 한다.”²¹⁾ “무릇 精明은 萬物을 보아 白黑을 구분하고 短長을 살피는 바이다. 長을 短으로 여기고 白을 黑으로 여기는 등 이와 같은 精이 쇠약해짐이다.”²²⁾

여기서 특별히 눈을 중심으로 精明 작용의 성쇠를 논한 것은, 감각기관 중 눈의 활동이 가장 뚜렷할 뿐만 아니라 오장지기의 灌注 또한 七竅 중 눈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며²³⁾, 귀·코·혀 등 나머지 竅는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精明은 신명활동의 정확성과 시비를 가름해주는 기반으로, 신명을 빛[光]에 비유한다면 거울[鏡]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神明과 精明은 자기의 신지를 발현하는 陽性的 신명과 신지의 발현을 내면으

로 각인해주는 陰性的 정명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分定한다. 신명은 陽化를 통해 나의 신지를 밖으로 펼쳐 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명은 陰化를 통해 감지된 변화를 내면에 각인해 줌으로써, 신지의 體用이 갖추어진다.

2) 魂과 魄의 직분 및 역할

魂은 陰中之陽藏인 肝을 본원으로 하고 魄은 陽中之陰藏인 肺를 본원으로 한다. 肝氣는 魂의 인도에 의하여 움직이며, 肺氣는 魄의 인도에 의하여 움직인다. 神은 神志의 覺醒과 認知를 통해 意識의 發揚을 주도하고, 精은 신지를 沈潛케 하여 의식의 休息을 이끌어 낸다. 魂은 신의 보조자이니 곧 신의 활동을 추동하고, 魄은 정 의 보조자이니 곧 정 의 平靜을 유도한다²⁴⁾. 따라서 魂魄의 本性은 肝肺의 작용기전을 통해 역추적할 수 있다.

陰中之陽藏인 간의 氣는 腎의 陰精으로부터 化生하고, 陽中之陰藏인 폐의 기는 心의 陽神으로부터 化生한다. 魂의 發動意志는 腎精을 대변하여 心神으로 發火하고, 魄의 安靜意志는 心神을 대변하여 腎精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혼은 陰界에 잠장되어 있는 개체의 潛在意志를 陽界의 意識으로 실현시키는 매개자이며, 魄은 陽界에서 얻어진 정보를 수습하여 陰界의 의지를 형성하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神은 心에서 발현하니 바야흐로 肝에 있을 때는 신이 아직 왕성하지 않음으로대, 이미 그 陽性的 魂을 化現함이며, 精이 腎에 잠장하니 바야흐로 肺에 있을 때는 精이 아직 충만하지 않음으로대, 먼저 그 陰性的 魄을 結聚함이다. ...대개 陽氣가 바야흐로 상승할 때는 아직 神을 化生하지 못하고 먼저 魂을 化生하며, 陽氣가 온전히 상승하면 魂이 變化하여 神으로 바

2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174. “髓海有餘, 則輕勁多力, 自過其度. 髓海不足, 則腦轉耳鳴, 腰痠眩暈, 目無所見, 懈怠安臥.”

2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57. “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短長. 以長爲短, 以白爲黑, 如是則精衰矣.”

2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342. “精散, 精散則視岐, 視岐見兩物.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故神勞則魂魄散, 志意亂.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也.(精이 흩어지면 視岐하니 視岐는 (하나의 사물이) 둘로 보임이다. 눈은 오장육부의 정화이고 영위 혼백의 항상 운영하는 바이며 신기가 발생하는 바이므로, 신이 수고로우면 혼백이 흩어지고 志意가 어지러워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瞳子와 검은자위는 陰氣를 본받으며 흰자위와 赤脈은 양기를 본받으니, 그러므로 음양이 상합하고 전일하여 精明해진다.)”

24)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8. “隨神往來者, 謂之魂. 並精而出入者, 謂之魄.”

꾸니, 魂은 神의 初氣이므로 神을 따라 왕래한다. 陰氣가 바야흐로 하강할 때는 아직 精을 화생할 수 없고 먼저 魄을 화생하며, 陰氣가 온전히 하강하면 魄이 변화하여 精으로 바뀌니, 魄은 精의 始基이므로 精과 아울러 出入한다.”²⁵⁾

魂은 陰界에서 陽界로 향하는 神志의 발현 과정을 추동하며, 魄은 양계에서 음계로 향하는 神志의 귀납과정을 유도한다. 신지가 양계로 발현하면 意識이 깨어나 외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음계로 귀납하면 意識도 휴식을 취하여 감지를 중단한다. 즉 魂은 신지를 외계로 인도하여 覺醒시키는 작용을 하며, 魄은 신지를 형체 안 內界의 精으로 귀납시켜 휴식을 이끈다.

이를 다시 형체와 신지의 관계로 대비시키 논한다면, 魄은 신지를 형체로 구속시키며, 魂은 구속되어 있는 신지를 외계로 放出한다고 할 수 있다. 또 神志의 無形의인 활동 즉 知覺은 魂의 추동을 받으며, 形體의 類型의인 구조는 魄의 행보를 따른다. 따라서 형체에서 신지의 發動處인 耳目鼻口 등이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됨은 곧 魄의 작용이며, 그 형태에 따라 정보에 접촉하고 전달하는 氣의 움직임은 魂이 지배한다.

“子産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화생함[始化]을 魄이라 하고, 이미 魄을 화생하면 陽을 魂이라고 하니, …이른 바 始化는 胎中에서 대략 형체를 이룰 때, 사람이 처음에 바로 받아들여 획득한 氣가 곧 結成함이다. 胚胎의 模樣이 魄이고, 이미 魄을 이루면, 곧 점차 會動하여 陽에 속한 것을 魂이라고 하며, 형체가 이

미 생겨났을 때 神이 知覺을 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知覺은 魂에 속하고 形體는 魄에 속하여 陽은 魂이고 陰은 魄이니, 魂은 陽의 神靈으로 氣의 莫이고 魄은 陰의 神靈으로 형체의 精이니, 마치 口鼻가 呼吸할 때 이는 氣이고 그 靈活處는 곧 魂에 속하며, 耳目이 보고들을 때 이는 體이고 이 聰明處는 곧 魄에 속한다.”²⁶⁾

神志의 陽化는 魂에 의해 주도되며, 陰化는 魄에 의해 이끌어진다. 혼이 신지가 外發하도록 양화를 추동할 때 여기에는 이미 神의 認知방향을 유도하는 精의 意志가 작동하고 있으며, 반면에 魄이 陰化를 유도할 때는 이미 여기에 神에 의해 인지되어 의식화된 정보가 反芻되어 축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에 의한 인지의 聰明과 정에 의한 정보의 明了는 魂과 魄의 매개작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신과 정의 過勞나 誤謬 등은 도리어 魂魄을 어지럽힐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意識과 意志는 경계를 잃게 되어,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認知와 판단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눈은 心의 시종이고 심은 신의 거처이니, 그러므로 神精이 어지러워져 運轉하지 못하면 갑자기 非常處[괴이한 것]를 보고, 精神과 魂魄이 흩어져 서로 조화를 얻지 못하므로 ‘惑[헛갈림]’이라고 한다.”²⁷⁾, “무릇 魂이 부유하여 神으로 바뀌고 魄이 침강하여 鬼로 바뀌니,

2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8. “神發於心, 方其在肝, 神未旺也, 而已現其陽魂, 精藏於腎, 方其在肺, 精未盈也, 而先結其陰魄. …蓋陽氣方升, 未能化神, 先化其魂, 陽氣全升, 則魂變而爲神, 魂者, 神之初氣, 故隨神往來. 陰氣方降, 未能生精, 先生其魄, 陰氣全降, 則魄變而爲精, 魄者, 精之始基, 故並精而出也.”

26) 北溪陳淳·朴流植 譯, 性理字意(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여강출판사, 1993, p.51. “子産, 謂人生始化曰魄, 既生魄, 陽曰魂, …所謂始化, 是胎中略成形時, 人初間穢受得氣便結成. 簡胚胎模樣, 是魄, 既成魄, 便漸漸會動, 屬陽曰魂, 及形既生矣, 神發知矣. 故人之知覺屬魂, 形體屬魄, 陽爲魂, 陰爲魄, 魂者, 陽之靈而氣之莫, 魄者, 陰之靈而體之精, 如口鼻呼吸, 是氣, 那靈活處, 便屬魂, 耳目視聽, 是體, 那聰明處, 便屬魄.”

27) 洪元植 精校, 上揭書, p.342. “目者心使也, 心者神之舍也, 故神精亂而不轉, 卒然見非常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

‘隨神往來謂之魂，並精而出謂之魄’이라, 精神이 안으로 손상받으면 魂魄이 飛揚하여 鬼神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²⁸⁾

혼에 의해 신지가 활동함으로써 生命體는 의식이 돌아와 주변 사물들의 변화를 감수하고 여기에 맞추어 자신의 形體的·神志的 활동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신지가 안으로 귀납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잠이 들면서 意識 또한 휴식에 들어간다. 수면과 각성은 신지의 음양활동을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했다 시피 이는 魂魄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혼백의 陰化와 陽化가 절도를 잃으면, 수면을 취하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각성해 있더라도 명료하지 못하다. 또 自覺과 자각하지 못함이 혼재되어 신지의 활동이 절도를 잃는다.

혼백이 망동하면, 수면을 취하더라도 神志가 완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므로, 외계와 교통하는 七竅 등의 감각기관을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神志의 浮遊 곧 꿈을 자주 꾀다. 꿈에서는 혼백의 망동이 神明을 錯亂시키거나 굴곡시키고 精明의 각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거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조작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正邪가 외계로부터 안으로 침범하여 ...머물 거처를 얻지 못하고 營衛와 더불어 함께 운행하고 魂魄과 더불어 飛揚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꿈을 자주 꾸게 한다.”²⁹⁾

이러한 혼란은 각성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혼백의 망동은 각성상태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지도록 혼란시켜, 神明의 정확한 인지와 판단을 흐리게 하여 꿈속과 같은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수면을 취하면 神志의 陽化作用이 그쳐야 하는데 魄의 失調로 그렇지 못하며, 각성하면 陰化作用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魂의 失調로 그렇지 못하여, 精과 神의 영역이 깨지고 착잡하여 신지가 수면과 각성의 상태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수면장애 多夢 등이 일어나지만, 심해지면 狂이나 癲 또는 의식의 혼란 등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邪哭으로 魂魄이 불안한 것은 血氣가 적기 때문이니, ‘血氣少’는 心에 속하고 心氣가 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잠들을 두려워하고 꿈속에서 멀리 떠나 精神이 흩어져 魂魄이 망동하므로, 陰氣가 쇠약한 자는 癲을 앓고 陽氣가 쇠약한 자는 狂을 앓는다.”³⁰⁾

따라서 魂의 陽化作用은 의식발현의 전단계를 주도하고 魄의 陰化作用은 의식의 말미에서 휴식으로 이끌어주니, 魂魄은 神과 精의 전화를 촉진하고 의식과 잠재의식을 매개하여, 神志와 形體·覺醒과 睡眠이 離決되거나 錯亂됨이 없도록 조절해주는 신지의 樞機이다.

3) 意와 志의 직분 및 역할

意는 陰中之至陰藏인 脾를 본원으로 하고, 志는 陰中之陰藏인 腎을 본원으로 한다. 심장의 신에 의해 인지된 정보가 일차적으로 記憶되는 것을 意라고 하고, 意가 생명체 내로 완전히 刻印되어 固定되는 것을 志라고 한다.³¹⁾

28) 馬元臺·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灣, 豪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70年, p.338. “夫魂遊爲神, 魄降爲鬼, 隨神往來謂之魂, 並精而出謂之魂, 精神內傷, 則魂魄飛揚, 而有似乎鬼神也.”

29)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02. “正邪從外襲內, ...不得定處, 與營衛俱行, 而與魂魄飛揚, 使人臥不得安而喜夢.”

30) 魏荔彤 撰,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46. “邪哭, 使魂魄不安者, 血氣少也. 血氣少者, 屬于心, 心氣虛者, 其人則畏合目欲眠, 夢遠行而精神離散, 魂魄妄行, 陰氣衰者爲癲, 陽氣衰者爲狂.”

31)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8.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五神 중 神은 심을 거처로 삼아 외계의 사물들의 변화에 반응하여 인지한다. 이때 魄은 神의 인지방향을 결정해준다. 즉 신의 眺望은 혼의 조정을 받아 특정한 사물에 대해 접근도를 높인다. 자극에 대한 神志의 반응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감수되어진 정보는 魄의 귀납작용에 의해 意[마음의 기억]라는 형태로 저장되고, 다시 여과[消化]과정을 거쳐 志로 수렴한다. 이때 기억 중 불합리하고 변잡하여 정리되지 않거나 그 개체의 의지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은 걸려져 버려지거나 숨겨지고, 일관성 있게 융합가능한 것은 다시 陰精 안으로 각인되니, 志는 神志의 結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찰을 잘 하는 자는 삼가 五藏六府의 一逆一從과 陰陽表裏 및 雌雄의 버리를 살펴서 心의 意에 잠장하고 心을 精에 합치하니, ...³²⁾

意는 神에 의해 인지된 정보가 魄의 1차적인 여과를 받아 쌓인 것이며, 志는 意가 2차적인 여과를 받아 개체 생명의 精華인 精의 心志로 각인된 것이다. 반대로 생명의 의지가 의식의 형태로 외계로 발현할 때는, 각인된 志는 혼을 조종하여 神의 인지방향 등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인식의 質的 기준이 되고, 意는 신이 사물을 인지할 때 인식의 형태를 대비·보조해주는 量的 기준이 된다. 즉 神은 意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志라는 가치기준에 의거하여 개개의 의미를 결정한다³³⁾.

단지 意는 時空間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거기에 알맞은 思量을 끄집어내야 하므로, 流動的이고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志는 이미 일관된 흐름 속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변화가 미소하다고 할 수 있다. 志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意는 접촉하는 순간순간 靈活하게 대응하므로 출입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意와 志를 陰陽으로 分節할 때, 유동성이 많은 意는 陽으로 고정성이 강한 志는 陰으로 분류할 수 있다.

“志와 意를 아울러 호칭하는 경우에 志는 이에 安靜하여 움직이지 않고 意는 이에 搖動하여 安定하지 못한다. 安靜하면 陰이고 搖動하면 陽이다.”³⁴⁾

이로 보면, 神이 의식의 외적 발현 즉 신지의 陽界를 관장할 때, 陰인 志는 혼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며, 陽인 意는 神의 인지하에 들어온 정보에 대한 반응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魄이 취득된 정보를 陰界에서 反芻·集積할 때, 陽인 意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陰인 志는 이것이 다시 여과를 받아 고정된 象으로 刻印된 神志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志意가 어지러워지거나 맑지 못하면, 思慮와 對應과정에 이상이 생겨 상황판단이 흐려지고 調整의 조절 등이 절도를 잃게 될 것이다.

“魂魄이 飛揚하고 志意가 恍惚하여 智慮가 몸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³⁵⁾, “志意는 정신을 부려서 魂魄을 거두어 寒溫에 적응하고 喜怒를 온화하게 하는 것이다.”³⁶⁾

따라서 한 생명체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득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를 記憶하고 취사

3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21. “故善爲脈者, 謹察五藏六府, 一逆一從, 陰陽表裏, 雌雄之紀, 藏之心意, 合心於精, ...”

33) 北溪陳淳, 上揭書, pp.17-19. “志者, 心之所之, ...謂心之正向, ... 意者, 心之所發也, 有思量運用之義.(志는 마음의 가는 바이니, ...마음의 바른 방향을 말함이고, ... 의는 마음의 발양하는 바이니, 사랑 및 운용의 뜻이 있다.)”

34) 王肯堂·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出版社, 1999, p.186. “志意並稱者, 志是靜而不移, 意是動而不定. 靜則陰也, 動則陽也.”

35)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魂魄飛揚, 志意恍惚, 智慮去身者, 何因而然乎.”

36) 洪元植 精校, 上揭書, p.213. “志意者, 所以御精神, 收魂魄, 適寒溫, 和喜怒者也.”

선택하여 정리하는 과정은 意에 의해 주도되며, 정보에 대한 가치부여 및 일관성은 志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 志와 意는 기억 및 선택과 일관성의 지표이다.

III. 考察

神志의 근간은 생명의 本源인 精과 神이다.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신지의 本源이며, 신은 오신으로 분화하여 生命意志를 발현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이 신과 정의 밝음[明] 즉 神明과 精明이 상합하여 어그러짐 없이 굴신할 때, 생명체의 이상적인 신지활동이 이루어진다.

『靈樞·本神』에서는 오신의 작용이 본분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신지의 이상징후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지적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징후도 포함하는데, 신지적 이상징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이 놀래고[怵惕] 집착하면[思慮] 神을 손상하고 神이 손상받으면 恐懼하여 茫然自失하고, … 脾가 愁憂하여 풀지 못하면 意를 손상하고, 意가 손상받으면 헛갈리고 어지럽고, … 肝이 悲哀로 中心을 흔들면 魂을 손상하고, 魂이 손상받으면 狂妄스러워 정성스럽지 못하고 정성스럽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고, … 肺가 喜樂에 절도가 없으면 魄을 손상하고, 魄이 손상받으면 狂妄스러워지고 광망한 사람은 사람을 염두해 두지 못하고, … 腎이 지나치게 화를 내어 그치지 않으면 志를 손상하고, 志가 손상받으면 잘 앞서 한 말을 잊어버리고, … 恐懼가 풀리지 않으면 陰精을 손상하고 음정이 손상을 받으면 … 손상받으면 陰이 虛해지고 陰이 虛해지면 生氣가 없고 생

기가 없으면 죽는다.”³⁸⁾

怵惕 등 平靜의 상실로 神이 손상을 받으면 주체적 정체성의 상실[恐懼]로 외계의 변화에 반응할 수 없고, 意가 손상을 받으면 의식의 혼란으로 판단이 어지러워져 健忘 등 즉각적인 記憶과 回想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魂이 손상을 받으면 神의 발현이 폭주하고 명료하지 못해 狂妄스러워지며, 魄이 손상을 받으면 신이 휴식과 안정을 얻지 못해 현실감을 상실하니[意不存人], 魂魄의 망동은 狂病 등 理智의 상실이나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지의 착란을 야기할 수 있다. 志가 손상을 받으면 기억의 각인이 약화되므로 일관성을 잃고 점차 記憶力이 감퇴하여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의 자기의 言行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신지의 이러한 敗類는 결국 생명의 본질적 토대인 陰精의 손상으로 이끌어지고, 陰精이 허손되면 生氣가 머물 곳을 잃어 죽음에 이른다.

신지의 단위 주체인 魂·神·意·魄·志 등 오신은 각각 자기에 걸맞는 독특한 성질 및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神은 열린세계[陽界]로 개체의 意識을 발현하여 변화를 인지하고, 志는 先天의 志³⁹⁾를 기반으로 닫힌세계[陰界]로 인지되어 여과된 정보를 귀납·각인하여

38) 洪元植 精校, 上揭書, p.68. “心怵惕思慮, 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 脾愁憂而不解, 則傷意, 意傷則恍惚, … 肝悲哀動中, 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 肺喜樂無極, 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人, … 腎盛怒而不止, 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 … 恐懼而不解, 則傷精, …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

39)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이전 이미 그 개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志를 말한다.

39) 여기서 음양교체지계는 음계와 양계가 時間的으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분계를 뜻하며, 음양회통지계는 음계와 양계가 空間的으로 교접하는 分界를 말한다. 즉 교체지계는 전환이 일어나는 분계로 시간의 변화를 따르며, 회통지계는 교합이 이루어지는 분계로 음양의 공간적인 영역이 겹치는 분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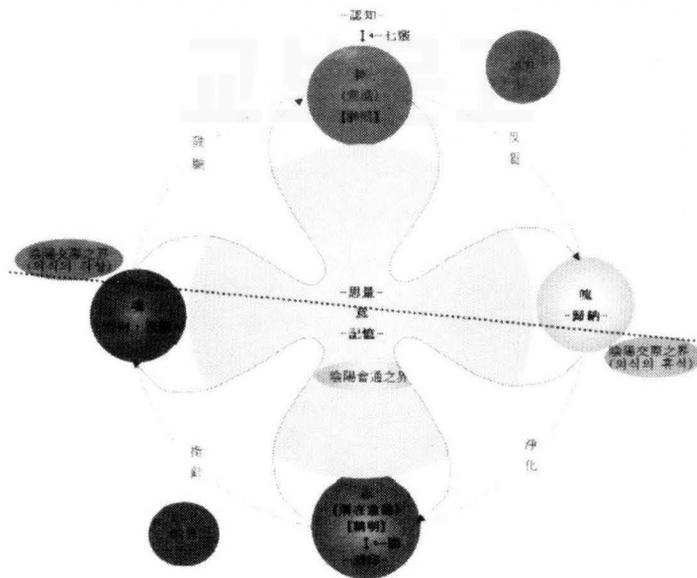
37) ‘忘’字는 『太素』에 근거하건데, 마땅히 ‘妄’字의 誤字이다.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彼我를 명확히 구분하여 외계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반응함은 신의 영민함에 달렸으며, 신의 인지방향과 선택은 志의 각인과 지침에 따른다. 魂과 魄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문호[陰陽交際之界]를 담당하는데, 魂은 수면상태로 잠재한 의식을 양계로 발동하는 의식의 전단계를 주도하고 魄은 각성되어 있는 의식을 음계로 인도하는 의식의 휴지기를 주도한다. 따라서 수면과 각성의 교차 및 각성시의 聰明과 수면시의

休息 등은 魂魄의 出入에 의해 좌우된다. 意는 이러한 신지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어주고, 더불어 인지된 정보를 일차적으로 기억하여 혼·신·지·백 등의 활동을 보조하니, 음계와 양계가 회통하는 세계[陰陽會通之界]를 관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은 意를 통해 비교되고 분석된다. 이를 정리하여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神志의 職分 및 役割】

오장	五神	活動之界	職分	役割
심	神 (神明)	陽界	意識의 發現과 認知	의식을 발현을 통해 외계의 변화를 感知하여 認知
간	魂	陰陽交際之界 (陽化之界)	의식의 發動 및 志의 지침을 전달	의식의 각성을 추동하고 인지의 방향을 결정
비	意	陰陽會通之界	認知된 정보를 과거의 記憶으로 思量	과거와 현실간 정보의 공유 및 思考의 調律
폐	魄	陰陽交際之界 (陰化之界)	의식의 休息 및 인지된 정보의 수용	의식의 휴식을 유도하고 정보를 反芻하여 歸納
신	志 (精明)	陰界	의식의 淨化와 가치기준(心志) 설정	의식을 淨化하고 정보를 융합해서 神志의 指標를 정립



【그림 - 神志의 開花圖[回路圖】

IV. 結論

지금까지 오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하여 『황제내경』의 기술을 근거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고찰·분석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신장 중 陽性인 간과 심은 陽界를 관장하여 의식의 발현을 통해 외계의 변화를 인지하며, 陰性인 비·폐·신 등은 陰界를 관장하여 인지된 정보를 기록[기억]하고 분석하여 각인한다. 육부 중 膈은 陽性으로 양계로 발현하는 의식에 절도를 부여한다.

2. 神志의 活動에 있어서, 神은 양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神志를 外界空間으로 확장하고, 志는 음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신지를 제한된 영역으로 집중하며, 魂과 魄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門戶[陰陽交際之界]를 開闢하고, 意는 이러한 神志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는 陰陽會通之界를 이룬다.

3. 神明과 精明은 자기의 신지를 발현하는 陽性의 신명과 신지의 발현을 내면으로 각인해주는 陰性의 정명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分定하여 신지의 體用을 이룬다.

4. 魂은 의식발현의 전단계를 주도하고 魄은 의식의 말미에서 휴식으로 인도하여 神志와 形體·覺醒과 睡眠이 離決되거나 錯亂됨이 없도록 조절해주는 신지의 樞機이다.

5. 意는 정보를 記憶하고 취사선택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주도하며, 志는 정보에 대한 가치부여 및 일관성의 지표이다.

신지를 형체에서 분리하여 사고하거나 논변하는 것은 한의학의 구조와 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신지의 직분이나 역할을 형체의 그것과 동일시해서 착

잡하여 논하는 것 또한 개념의 정립이나 실제 응용을 바랄 때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각각의 사물들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개개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통합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짧은 지식과 어설픈 논리전개가 앞길을 개척하는데 도리어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가 쌓여 한의학의 논리구조나 『黃帝內經』에 대한 이해, 임상의학으로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시발이 될 수 있다면 그런대로 헛수고는 변할 수 있을까 기대한다.

V. 참고문헌

1. 白上龍, 神志의 활동과 衛氣의 役割,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3.
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6.
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6.
5.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6.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7. 北溪陳淳·朴浣植 譯, 性理字意(성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여강출판사, 1983.
8. 馬元臺·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灣, 臺聯國風出版社, 中華民國70년.
9. 魏荔彤 撰, 金匱要略方論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0. 王肯堂·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出版社, 1999.